

## 셀프리더십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유봉호<sup>1\*</sup>

<sup>1</sup>단국대학교 공과대학

###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f Self-leadership on Start-up Intention

Bong-Ho Yoo<sup>1\*</sup>

<sup>1</sup>College of Engineering, Dankook University

**요약** 창업의 원천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창업의지는 경제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나 다름없다. 본 연구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업자의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고찰하였다. 그동안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와 연관성을 살펴 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창업을 하면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 창업자는 조직구성원들을 이끌어 가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이전에 셀프리더십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리더 자신의 동기와 효능감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적 창업자가 아닌 창업자의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및 내재적 동기와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창업의지관련 이론적·실증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의 창업자로부터 받은 설문지 195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셀프리더십이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셀프리더십이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선행변수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증강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셀프리더십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에 따라,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As an origin and a starting point of business start-up, this start-up intention is believed to be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Being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start-up intention, the study looked into cause-and-effect relationships of variables focusing on intermediate roles of start-up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in self-leadership and start-up intention of business founder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the study conducted both a survey targeting a total of 195 business founders registered at a business incubation center an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ccording to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the study first learned that the self-leadership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tart-up self-efficacy and the intrinsic motivation which eventually proved that the self-leadership is a leading variable of the start-up self-efficacy and the intrinsic motivation. Second, both the start-up self-efficacy and the intrinsic motivation were observed to be positively related to the start-up intention. That finding signified that roles of the start-up self-efficacy and the intrinsic motivation are important to increase the start-up intention. Third, intermediate effects of the start-up self-efficacy and the start-up intention were discovered from the self-leadership and the start-up intention, the main topics of the research. Hence, in order to improve the start-up intention, the importance of the start-up self-efficacy and the intrinsic motivation should be recognized and promoted as well and for this goal to be achieved, the business founders should understand the idea that the self-leadership has to come first than anything else in this cas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study off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Key Words** : Intrinsic Motivation, Start-up Intention, Self-leadership, Start-up Self-efficacy

\*Corresponding Author : Bong-Ho Yoo(Dankook Univ.)

Tel: +82-10-8008-0258 email: bongho@dankook.ac.kr

Received September 17, 2013

Revised (1st October 10, 2013, 2nd March 6, 2014)

Accepted March 6, 2014

## 1. 서론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위해서는 창업의지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결국 창업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으로서 창업자의 창업의지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창업의지는 창업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Shapero(1981)는 한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침체된 조직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창업의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창업의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연구주제로 다루어 왔으나 대부분 잠재적 창업자를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모두 창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본 연구는 창업보육기관 입주 기업 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창업을 꿈꾸거나 창업을 고려하는 잠재적 창업자가 아닌 창업자의 창업의지를 살펴봄으로써, 중요 변수가 무엇이고 관련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창업의지관련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다양한 변수를 선정하여 이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고찰해 왔으나, 연구결과들이 저마다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창업효능감이나 창업동기와 같은 심리특성은 창업의지관련 요인으로서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신기할 정도로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와의 연관성을 살펴 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창업을 하면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 창업자는 조직구성원들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리더십이다.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조직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은 외적인 프로세스 즉 외부 지향적 개념이다[2]. 하지만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 이전에 리더 자신의 동기부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외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는 리더 스스로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셀프리더십이다. 결국 리더십을 행사하기 이전에 셀프리더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셀프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리더 자신의 동기와 효능감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다소 있지만 셀프리더십과 내재적 동기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창업의지 관점에서 셀프리더십을 다룬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관련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 왔지만, 내재적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Carsrud and Brännback(2011)은 창업동기관련 선·후행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고찰해 볼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자의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창업의지 관점에서 셀프리더십과 내재적 동기를 살펴보고, 잠재적 창업자가 아닌 창업자의 셀프리더십과 창업효능감 및 내재적 동기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해보는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명확한 창업의지관련 이론적 시사점은 물론 실증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셀프리더십

Manz(1986)가 처음 주장한 셀프리더십은 직무 수행을 위한 자기 주도과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기 위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영향력이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부로부터 행사된다는 개념이다. 셀프리더십은 크게 행동전략과 인지전략으로 구성되며, 인지전략은 다시 자연보상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으로 구분된다[16]. 결국 행동전략, 자연보상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으로 나누어진다. Bandura(1971)의 사회학습이론을 기초로 한 행동전략은 자기 나름대로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행동하며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적 평가이론에 근거한 자연보상전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19]. 건설적 사고전략은 자신의 일이나 활동의 성과를 위해 생각이나 사고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16]. 이와 같이 남에 의한 것이 아닌 스스로를 동기부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셀프리더십이야말로 창업자가 가져야할 필수요건이라 생각된다.

### 2.2 창업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과업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서[1],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도전적이며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주어진 과업을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한다[26]. 이처럼 수많은 난제를 풀어가야 하는 창업가적 과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바로 창업효능감이다[25]. 창업효능감은 창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서, 창업의 핵심적 심리특성이다[5].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창업효능감으로 발전시킨 Boyd and Vozikis(1994)의 연구를 필두로, 창업효능감이 학자들[5][17]로 부터 관심을 끌기 시작하

였다.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강하기 때문에 창업관련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12]. 마찬가지로,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많은 영향을 준다[17].

### 2.3 내재적 동기

창업 동기는 경제적 자립, 야망의 실현 등 창업자마다 다르다. 창업관련 연구에서도 주목을 받아 온 동기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근원에 따라,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와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로 구분된다. 물질적 보상에 따라 움직이는 외재적 동기와는 달리, 내재적 동기는 직무 자체의 즐거움이나 자기만족을 위해 일을 추구하는 내면의 욕구를 말한다[7]. 따라서 내재적 동기는 신념을 가지고 일을 즐기려는 능력욕구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자율 욕구로부터 유발된다[8]. 결국 내재적 동기는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자발적인 행동을 유발시킨다. 인간은 누구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10]. 이처럼 신사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창업 동기는 부 창출과 같은 외재적 동기보다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로 인한 창업 비중이 훨씬 높은 편이다[8]. 따라서 본 연구도 창업동기를 내재적 동기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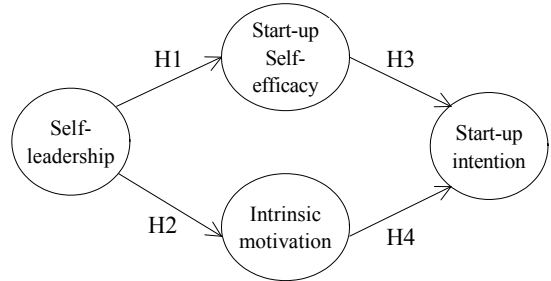
### 2.4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창업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창업관련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줌으로써, 창업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24]. 창업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창업의지는 창업의도를 나타내는 태도를 말하며, 창업과정의 첫 단계로서 자신의 태도나 경험을 창업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창업의지는 신생 기업의 초기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3]. 따라서 창업의지는 창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는 경제적·개인적 환경, 개인의 성향 등을 들 수 있다[20].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본 연구는 창업의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업의지관련 선행요인 관점으로 변수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구 설계

### 3.1 연구모형

앞 절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Fig. 1과 같이 본 연구를 설계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 3.2 연구가설

#### 3.2.1 셀프리더십과 창업효능감의 관계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보다 의욕적으로 설정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처럼 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22]. 자연 보상전략을 내포하고 있는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일 자체의 가치와 보람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을 강화시켜 준다[16]. 이와 같이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8,19].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창업자의 셀프리더십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2 셀프리더십과 내재적 동기의 관계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이다[15]. 자연보상의 원리를 기초로 한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직무에서 즐거움을 찾는 내적 보상을 내포하고 있다[19]. 셀프리더십의 행동 지향적 전략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내재적으로 동기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건설적 사고 전략도 자신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시킨다. 이와 같이 셀프리더십은 내재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1].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창업자의 셀프리더십은 내재적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3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약할수록 낮게 나타난다[26]. 이처럼 창업

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도전의식이 강하며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4]. 이와 같이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17].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창업자의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4 내재적 동기와 창업의지의 관계

내재적 동기는 자신의 행동이 외부적 통제가 아닌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업을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수행하게 만든다[23]. 뿐만 아니라, 내재적 동기는 자율성과 자기결정감(self-determination)을 내포하고 있다[7,8]. 이와 같이 자기결정감([13]이 강하고 능동적·자율적·진취적인 사람일수록 창업의지가 강하다[6]. 따라서 내재적 동기는 창업활동의 출발점이며, 의도적인 창업 활동을 의미하는 창업의지의 시발점이다[4].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내재적 동기는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창업자의 내재적 동기는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5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킨다[16]. 이와 같이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18] [19].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기회 포착에 대한 자신감이 강해지므로 창업의지 또한 강해진다[14]. 그러므로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에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적 추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창업자의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3.2.6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에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16], 내재적 동기는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이루고자 스스로 행동하게 한다. 이와 같이 셀프리더십은 내재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내재적 동기는 창업활동[4]과 창업의지의 출발점이다[11].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에 내재적 동기의 매개역할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적 추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창업자의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에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6] 창업자의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에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측정항목 대부분은 선행연구와 동일하지만, 일부는 본 연구의 성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적용하였다. 기업특성과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Likert 5점으로 측정하였다.

셀프리더십은 Manz(1986)의 연구를 기초로, 직무 수행을 위한 자기 주도과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기 위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행동중심전략 3 문항, 자연보상전략 3 문항, 건설적 사고 전략 3 문항 등 총 9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창업효능감은 Chen et al.(1998)의 연구를 기초로, 창업자 자신의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핵심적인 심리특성으로 정의하였으며, 4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내재적 동기는 Deci(1975)의 연구를 기초로, 직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즐거움이나 자기만족을 위해 일을 추구하는 내면의 욕구로 정의하였으며, 4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창업의지는 Bird(1988)의 연구를 기초로, 창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5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4. 실증분석

### 4.1 연구의 표본

#### 4.1.1 표본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표본은 수도권 창업보육기관 입주 기업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정확성과 회수율을 높이고자 직접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195부를 회수하여 이를 통계 처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 4.1.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표본특성 Table 1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90%)가 우세하며, 연령은 30- 40대(86%)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학력은 대졸 이상(90%)이 대부분이다. 업종은 제조업(70%)이 많으며, 소재지는 수도권(77%)에 집중되어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76	90
	Female	19	10
Average Age	20	28	14
	30	110	57
Age	40	57	29
	High School	20	10
Education Level	University	115	59
	Graduate School	60	31
Industry	Manufacturing (1)	95	49
	Service (2)	58	30
	(1)+(2)	42	21
Area	Seoul, Kyeonggi, Incheon	151	77
	Others	44	23

## 4.2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 4.2.1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뢰도 평가 계수인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측정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기준은 Cronbach's alpha 값이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분석결과, Table 2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 4.2.2 집중타당성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세부요인(관측변수)들 간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한 후, 상위 확인적 요인분석인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잠재변수에 대한 집중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Table 2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가 표준화요인부하량 기준치(0.5), 평균 분산추출(AVE) 기준치(0.5), 신뢰도(CR) 기준치(0.6)를 상회하여 각 연구단위별 집중타당성이 검증되었다.

### 4.2.3 판별타당성 분석

판별타당성은 구성개념 간의 차별성을 측정하는 것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두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1로 제약시킨 제약모형과 제약시키지 않은 비 제약모형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둘째, AVE 값이 두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을 상회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보다 두 번째 방법이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도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두 번째 방법으로 판별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Table 3과 같이 AVE 값이 두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을 상회하여 판별타당성이 검증되었다.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Analysis of Variables

Variables	Items	Cronbach's α	Estimate ≥ .5	GFI ≥ .9 CFI ≥ .9 AGFI ≥ .8	CR ≥ .6	AVE ≥ .5	
Self-leadership	SL1	3	.783	.846 .886 .895	.924 .927 .858	.983	.767
	SL2	3	.761				
	SL3	3	.758				
Self-efficacy	4	.792	.848 .860 .833 .842	.976 .960 .881	.961	.715	
Intrinsic Motivation	4	.850	.834 .798 .891 .895	.958 .970 .892	.989	.732	
Start-up Intention	5	.878	.869 .905 .920 .729 .787	.957 .977 .872	.988	.714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of Variables

Variables	(1)	(2)	(3)	(4)
Self-leadership(1)	<b>.767</b>			
Self-efficacy(2)	.511	<b>.715</b>		
Intrinsic Motivation(3)	.477	.429	<b>.732</b>	
Start-up Intention(4)	.318	.307	.400	<b>.714</b>

p<0.01

## 4.3 확인적 요인분석

### 4.3.1 전체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전체요인 간의 집중·판별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Table 4와 같이 모형 적합도지수가  $\chi^2=124.898$ , d.f.=48, Cmin./d.f.=2.602 ( $\leq 5$ ),  $p<0.001$ , GFI=0.907, AGFI= 0.848, NFI=0.922, IFI=0.951, TLI=0.931, CFI=0.950, RMSEA=0.091로 나타나 기준치를 모두 상회하였다. 그리고 Table 4와 같이, 모든 측정항목이 0.001% 유의수준에서 표준화 요인부하량, t값, 개념 신뢰도 등 기준치를 모두 충족시켰다. 또한 표준화 요인부하량, AVE 값, CR 값이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여 4개 잠재변수의 집중·판별타당성이 검증되었다.

[Table 4] Factor Analysis Results of Overall Variables

Variables		Estimate	Standard Estim. $\geq .5$	S.E. $\angle 1.0$	$t_{값} \geq 2.58$	CR $\geq .6$	AVE $\geq .5$
Self-leadership	SL1	1.000	.764	-	-	.865	.581
	SL2	.958	.737	.091	10.383		
	SL3	.944	.785	.089	10.812		
Self-efficacy	SE1	1.000	.722	-	-	.814	.518
	SE2	.792	.772	.093	8.513		
	SE3	1.589	.715	.089	9.026		
Intrinsic Motivation	IM1	1.000	.804	-	-	.974	.739
	IM2	1.156	.857	.085	13.677		
	IM3	2.124	.914	.144	14.734		
Start-up Intention	SI1	1.000	.818	-	-	.959	.783
	SI2	2.195	.914	.141	15.612		
	SI3	2.287	.919	.146	15.693		

4.4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였다.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비교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형적합도지수가  $\chi^2=125.366$ , d.f.=49, Cmin./d.f.=2.558( $\leq 5$ ),  $p < 0.001$ , GFI=0.907, AGFI=0.852, NFI=0.922, IFI=0.951, TLI=0.933, CFI=0.951, RMSEA=0.090으로 나타나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이와 같이 이론모형의 가설을 검증한 후, 대안모형의 주요 적합도지수를 비교하여 대안모형의 수용여부를 확인하였다. 대안모형은 이론모형과 nested 관계를 형성하고,  $\chi^2$  값이 임계치 이상 차이가 나야 하며, 적합도지수가 이론모형보다 더 적합해야 수용할 수 있다.

1차 대안모형은 이론모형의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의 경로를 제외한 모형이다. 1차 대안모형과 이론모형의 적합도지수를 비교한 결과,  $\chi^2$  값과 주요 적합지수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모형으로 평가하였다. 2차 대안모형은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이론모형의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 변수를 제거한 모형이다. 2차 대안모형과 이론모형의 적합도지수를 비교한 결과,  $\chi^2$  값이 임계치 이상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주요 적합도지수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수용할만한 모형으로 평가하였다.

[Table 5] Comparison of Model Fit

Model	$\chi^2$	d.f.	$\Delta\chi^2$	Cmin./d.f. $\leq 5$	$p \leq .05$	GFI $\geq .9$	AGFI $\geq .8$	CFI $\geq .9$	RMSEA $\leq .1$
Basic	125	49		2.558	.000	.907	.852	.951	.090
Alt.1	125	50	.121	2.510	.000	.907	.855	.951	.088
Alt.2	28	8	97	3.490	.000	.959	.891	.971	.613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Table 6과 같이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 1은 표준화경로계수가 0.914( $t_{값}=8.926$ ,  $p < 0.001$ )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여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Prussia et al.(1998)과 Neck and Houghton(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가설 2도 표준화경로계수가 0.826( $t_{값}=9.442$ ,  $p < 0.001$ )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채택되었다. 결국 Konradt et al.(2009)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가설 3 역시 표준화경로계수가 0.340( $t_{값}=2.923$ ,  $p < 0.001$ )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이 결과도 Krueger et al.(2000)의 연구와 일치한다. 가설 4도 표준화경로계수가 0.434( $t_{값}=3.903$ ,  $p < 0.001$ )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임으로써, 본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에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가설 5와 가설 6도 채택되었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이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매개역할로 인해 창업의지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Table 6] Verification of Research Model

Hypothesis		Standard Estim. $\geq .5$	S.E.	C.R.	p	Adopt
H1	SL $\rightarrow$ SE	.914	.069	8.926	.000	Adopt
H2	SL $\rightarrow$ IM	.826	.039	9.442	.000	Adopt
H3	SE $\rightarrow$ SI	.340	.202	2.923	.003	Adopt
H4	IM $\rightarrow$ SI	.434	.288	3.903	.000	Adopt
H5	SL $\rightarrow$ SI	-.118	.412	-.333	.739	Adopt
H6						

SL : Self-leadership, SE : Self-efficacy, IM : Intrinsic Motivation, SI : Start-up Intention

5.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창업의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되는 중요 변수를 발굴하고 관련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셀프리더십과 창업의도 간에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잠재적 창업자가 아닌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의지를 살펴보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셀프리더십을 창업의지 관점으로 고찰하였다는 점 등이 본 연구의 학술적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셀프리더십은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셀프리더십은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선행변수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는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가 창업의지의 선행변수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에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결국 셀프리더십이 창업의지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창업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창업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셀프리더십을 강화시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셀프리더십이야말로 창업의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창업의지 관점에서 셀프리더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는 셀프리더십과 창업의지 간에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셀프리더십이 창업의지에 더욱 강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잠재적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와 같은 요인들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물론 다음과 같이 실증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창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잠재적 창업자들로 하여금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범사회적으로 창업관련 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의지를 강화시켜야만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제공하는 시사점을 토대로, 창업관련 기관들은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혁신적인 창업의지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5.1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이상과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창업의지관련 변수들을 전술한 바와 같이 세 가지만 적용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개인적인 배경특성 등 보다 다양한 변수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창업의지관련 변수 간의 매개역할을 살펴보았으나, 향후 연구는 조절효과와 같은 다양한 인과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

구는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의 창업자만을 고찰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을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보다 다양한 표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향후 연구방향을 토대로 더욱 발전된 후속 연구들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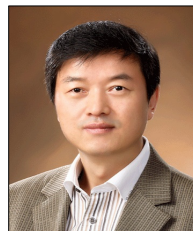
## References

- [1] Bandura 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2, No.2, pp.191-215, 1977.  
DOI: <http://dx.doi.org/10.1037/0033-295X.84.2.191>
- [2] Bass B. M. & Stogdill's, *Handbook of Leadership*, The Free Press, pp.23-24, 1990.
- [3] Bird B.,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3, pp.442-454, 1988.  
DOI: <http://dx.doi.org/10.5465/AMR.1988.4306970>
- [4] Carsrud A. & Brännback, M., "Entrepreneurial Motivations : What do We Still Need to Know?,"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49, No.1, pp.9-26, 2011.  
DOI: <http://dx.doi.org/10.1111/j.1540-627X.2010.00312.x>
- [5] Chen C., Greene, P. & Crick, A.,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3, pp.295-316, 1998.  
DOI: [http://dx.doi.org/10.1016/S0883-9026\(97\)00029-3](http://dx.doi.org/10.1016/S0883-9026(97)00029-3)
- [6] Covin J. G. & Slevin D. P.,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6, No.1, pp.7-25, 1991.
- [7] Deci E. L.,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 Plenum, pp.87-90, 1975.
- [8] Deci E. L. & Ryan R. M.,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and London. Plenum Press, p.121, 1985.  
DOI: <http://dx.doi.org/10.1007/978-1-4899-2271-7>
- [9] Boyd N. G. & Vozikis G. S.,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8, No.4, pp.63-77, 1994.
- [10] Hackman J. R. & Oldham G. R., *Work Design* Reading, M.A.: Addison-Wesley, p.129, 1980.
- [11] Konradt U., Anderson P. & Ellwart T., "Self-Leadership in Organizational Teams: A Multi-Level Analysis of Moderators and Mediators," *European*

-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18, No.3, pp.322-346, 2009.  
DOI: <http://dx.doi.org/10.1080/13594320701693225>
- [12] Krueger N. & Brazea D. V.,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8, No.3, pp.91-104, 1994.
- [13] Krueger N. F. & Carsrud, A. L.. "Entrepreneurial Intentions :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Vol.5, pp.315-330, 1993.  
DOI: <http://dx.doi.org/10.1080/08985629300000020>
- [14]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5, No.5, pp.411-432, 2000.  
DOI: [http://dx.doi.org/10.1016/S0883-9026\(98\)00033-0](http://dx.doi.org/10.1016/S0883-9026(98)00033-0)
- [15] Manz C. C.,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 in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1, No.3, pp.585-600, 1986.  
DOI: <http://dx.doi.org/10.2307/258312>
- [16] Manz C. C. & Neck C. P.,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3<sup>rd</sup>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p.151-165, 2004.
- [17] McGee J. E., Peterson M., Mueller S. L. & Sequeira J. M..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3, No.4, 965-988, 2009.  
DOI: <http://dx.doi.org/10.1111/j.1540-6520.2009.00304.x>
- [18] Neck C. P. & Houghton J. D.,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21, No.4, pp.270-295, 2006.  
DOI: <http://dx.doi.org/10.1108/02683940610663097>
- [19] Prussia G. E., Anderson J. S. & Manz C. C., "Self-leadership and Performance Outcomes: The Mediating Influence of Self-Efficac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19, pp.523-538, 1998.  
DOI: [http://dx.doi.org/10.1002/\(SICI\)1099-1379\(199809\)19:5<523::AID-JOB860>3.0.CO;2-I](http://dx.doi.org/10.1002/(SICI)1099-1379(199809)19:5<523::AID-JOB860>3.0.CO;2-I)
- [20] Reynolds P. D., Predicting New Firm Births: Interactions of Organizational and Human Populations, In Sexton, D.L., & Kasarda, J.D. (Eds.), *The State of the Art of Entrepreneurship*, Boston: PWS-Kent Publishing, pp.268-297, 1992.
- [21] Shapiro A., "The Displaced, Uncomfortable Entrepreneur," *Psychology Today*, Vol.9(Nov.), pp.83-88, 1981.
- [22] Sims H. P. & Lorenzi P., *The New Paradigm: Social Learning and Cognition in Organization*, Thousand Oaks, CA: Sage, pp.133-135, 1992.
- [23] Spector P. E., "Perceived Control by Employees: A Meta-Analysis of Studies Concerning Autonomy and Participation at Work," *Human Relations*, Vol.39, pp.1005-1016, 1986.  
DOI: <http://dx.doi.org/10.1177/001872678603901104>
- [24] Veciana J. M., Aponte M., & Urbano D.,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Vol.1, pp.165-182, 2005.  
DOI: <http://dx.doi.org/10.1007/s11365-005-1127-5>
- [25] Zhao H., Seibert S. E. & Hills G. E.,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90, No.6, pp.1265 - 1272, 2005.  
DOI: <http://dx.doi.org/10.1037/0021-9010.90.6.1265>
- [26] Wood R. & Bandura A.,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 Behavior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2, No.3, pp.472-485, 1989.

유 봉 호(Bong-Ho Yoo)

[정회원]



- 1999년 8월 :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 2008년 8월 :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기업가정신, 창업, 기술경영, 리더십, 마케팅